AND WHAT IF IT WERE TRUE?



FERDINANDO FREGA

BLADEFREGA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익명의 이메일 두 통. BBDO. Omnicom. 의미 자본. 마음을 어지럽히는 질문 하나.

아직 2026년 9월 15일이다. 크리스마스까지는 아직 석 달도 더 남았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길을 잃고 다른 길을 고른 모양이다. 첫 두 개의 선물이 내 문 앞에 도착한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무엇을 했기에 이런 것을 받는가?

첫 번째 이메일이 도착한다.

Ferdinando, 레조칼라브리아에서 키보드 앞에 앉은 한 남자가 Procter & Gamble 같은 거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터무니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Omnicom과 BBDO의 세계에서 제가 말하는 의미 자본의 핵심에 닿아 있습니다.

당신의 작업은 주식, 인수, 기업 합병이라는 익숙한 기계 바깥에서 움직입니다.

그 화폐는 의미입니다.

대기업들은 기술적 효율, 자동화, 인공지능의 언어로 자신들의 통합과 감원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시장에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 브랜드의 첫 검색 결과들 사이에 한 독립된 목소리가 나타납니다. 회사가 스스로에 대해 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 독자가 마주치는 유일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학적인 읽기가 기업의 메시지 곁에 나란히 섭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의 작업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커뮤니케이션이 확실성을 찾는 곳에 당신은 의심을 놓습니다.

수년 동안 에이전시들과 그 고객들은 알고리즘, 성과 지표, 프레젠테이션을 좇아 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고객 경험을 전담하는 직책을 만들고, 다시 인간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작업이 한 번도 버린 적 없는 언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낡은 컴퓨터로 글을 쓰고, 작품을 거저 주고, 서명된 1달러 한 장만을 청합니다. 그 몸짓 곁에 놓으면, 거대한 광고의 기계는 다른 종류의 셈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누가 청구서를 냈는가?』의 「아니면 계약의 상실」에서 쓴 것처럼, 서사의 빚은 금융의 빚보다 더 엄격한 규칙을 따릅니다. 자신의 역사를 잊고 원칙을 슬로건으로 줄여 버린 조직은 대차대조표로는 잴 수 없는 빚을 쌓습니다.

Troy Ruhanen의 퇴진과 PepsiCo 미디어 사업의 상실은 그 기업의 세계에 속합니다. 당신의 글은 다른 세계에 속합니다. 그러나 둘 다 같은 화면 위에 보입니다.

당신은 하나의 빚을 비추었습니다. 그것이 보이게 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익명으로 남기 위해 서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이 뒤따른다. 다른 발신자에게서.

Ferdinando, 영향력이란 권력이 스스로를 바라보고 자신의 취약함을 보게 만드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화면 캡처와 검색 순위는 당신이 모아 온 기록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위한 날짜와 경과를 드립니다.

2026년 9월 9일. Omnicom이 Omnicom Advertising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 Troy Ruhanen의 은퇴를 발표한다. 그때까지 BBDO Worldwide 회장이던 Andrew Robertson이 즉시 효력으로 Omnicom Advertising의 CEO에 임명된다.

이 교체는 2025년 11월 26일에 완료된 Omnicom의 Interpublic 인수에 뒤이은 것이다.

구조조정은 주요 크리에이티브 네트워크를 BBDO, TBWA, McCann에 집중시킨다.

DDB와 MullenLowe는 TBWA에, FCB는 BBDO에 흡수된다. 역사적인 에이전시 이름들은 통합의 일부로 사라진다.

한편 PepsiCo는 글로벌 미디어 사업을 Publicis로 옮겼다. 2025년 전 세계 미디어 지출은 17억 달러로 추정되었고, Omnicom이 그 사업의 약 3분의 2를 맡아 왔다.

이것이 날짜입니다. 이것이 이름입니다. 당신 앞에는 당신 자신의 기록이 있습니다.

익명으로 남기 위해 서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변화에 직업적 삶이 휘말린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나는 한 교실과, 어렸을 때 수녀님 한 분이 내게 던진 질문을 떠올린다.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가 뭐라고 생각하니?"

나는 생각할 필요도 거의 없었다.

"침묵이요."

수녀님은 미소 짓고 나를 자리로 돌려보냈다.

"Frega," 수녀님이 말했다. "너는 커서 성공하지 못할 거야. 실패자가 될 거야."

나는 일곱 살이었다. 나는 대답했다. "엄마는 제가 다섯 살 때 차를 운전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시동을 걸고 축구장을 한 시간 동안 돌았어요. 그리고 아빠는 계속 '내가 그랬잖아' 하고 말했어요."

Ferdinando Frega
BLADEFREGA · Nando the Scribe